

글로 그린 내 삶

송병화

코로나 19라는 바이러스가 우리 삶을 갇아먹으며 2년 가까이 떠나지 않고 있다. 본의 아니게 직장을 잃고 방황하던 작년 여름만 해도 희망은 있었다. 백신만 개발되면 마스크 벗고 친구들을 만나며 행복했던 일상을 회복할 수 있으리라 믿었다. 하지만 델타 변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나타나 확진자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렸고 다시 전 세계를 긴장시키며 공포 속으로 나를 밀어 넣었다. 백신을 맞는 사람들이 늘어났지만, 여전히 마스크를 써야 했고 두려움은 더욱더 커졌다. 일상은 다시 멈추었고 한시적으로 움직이던 외부 활동마저 막혀 또다시 나는 집 안에 갇혔다. 시행착오로 길든 고양이처럼 외출이 뜸해지고 만나는 사람이 없어지면서 내 생활도 혼자 견디는 일에 익숙해졌다.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에너지를 안으로 응집시키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거듭했다. 친구들과 다양한 모임의 지인들을 만나지 못하면서 생긴 고립감이 제일 문제라고 마음이 일러주었다. 그래서 나는 대면으로 만날 수 없는 그들과 함께했던 나의 삶을 더듬어 글로 옮기는 일을 해보기로 했다. 내 기억이 더 흐려지기 전에 지나온 나의 날들과 그 속에 들어와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보겠다는 야무진 생각을 실천에 옮겼다.

글을 써야겠다는 목표가 생기자 하루하루가 바쁘게 지나갔다. 추억을 꺼내 글로 옮기는 순간 시간은 화살처럼 날아가 과거의 과녁에 꽂혔다. 레테의 강을 건너온 듯 까마득히 잊었던 옛일들이 퍼즐 조각처럼 생각 속으로 들어왔다. 현재의 나는 지나온 '나'와 만나면서 수많은 무언의 대화를 나눴다. 빛바랜 사진 속에서 함께 미소 짓던 친구들에게 스마트폰으로 옛 사진을 다시 찍어 보내주면 너무 즐거워했다. 친구들은 사진 한 장으로 SNS에 뭉쳐 학창 시절을 떠올리며 젊음을 회고했다. 모두 한 마음으로 40년 전으로 돌아간 듯 옛이야기를 쏟아내며 행복했다. 옛그제 일처럼 생생한데 벌써 흰 머리카락이 검은 머리카락보다 많아

진 나이가 되었음에 아쉬움을 토해냈다. 사진은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며 시간 여행자가 되어 나를 안내했다. 추억 속으로 여행을 다녀온 나는 생생하게 사진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그림 그리듯 글로 옮겼다. 날마다 반복되는 글쓰기였지만 만나는 사람이 다르고 시간과 장소가 달라 지루할 틈이 없었다. 그 시절로 돌아가 있는 듯 그때의 느낌을 온몸으로 받으며 컴퓨터 자판을 두드릴 때는 신들린 듯 손가락이 춤을 추었다. 집에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았다. 생각 속에 이미 많은 사람이 나와 대화하고 있었고 함께 숨 쉬고 있었다. 지나온 날들의 아픔과 상처는 써 내려가는 글과 함께 눈물이 씻어주었다. 벼랑 끝에서 추락이 아닌 비상을 선택하여 험난한 고비를 무사히 넘겼던 일은 칭찬이 나를 보듬어주었다. 특히 나의 어린 시절 이야기는 고대 유적지에서 발견한 유물처럼 아득한 기억 뒤편에서 나를 맞이했다. 초등학교시절부터 지금까지 미추홀구에서 계속 살면서 내게 저장된 많은 추억이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사라지는 것은 마음 시린 일이었다. 그래도 꼬리를 감추지 않은 기억을 불러내 글 속에 녹여 회생시켰다. 흐른 세월의 변화만큼 따라가지 못하고 서 있는 나처럼 곳곳하게 제 모습을 지키며 버텨주는 것들에게 나는 동병상련의 위로를 받았다.

‘겨울방학이 되면 아이들은 아침부터 두 줄로 묶인 스케이트를 앞뒤로 어깨에 걸쳐 메고 으스스대며 학교에 모여들었다. 하루 전 수위 아저씨가 운동장 가장자리를 가마니로 에워 둘러싸고 호수로 물을 받아 얼려 놓은 훌륭한 스케이트장을 즐기기 위해서다. 두툼하게 둘러싸인 가마니 위에서 아이들은 발 길이의 두 배쯤 되는 스케이트 날을 세우고 검은 가죽 신발에 발을 끼워 넣은 후 하얀 줄로 엇갈려 단단히 동여맸다. 두 발과 스케이트가 한 몸이 되면 비틀거리면서 얼음판 위에 발을 들여놓고 좌우로 미끄러지듯 전진했다. 나는 그 아이들이 많이 부러웠다. 나도 앞 코가 반짝이는 검정 스케이트 하나 갖고 싶었지만, 형편이 허락지않았다. ...’

‘내가 송의초등학교 다니던 시절 살았던 동네는 현재 송의 사거리에 있는 국민은행 건너편이었는데 월미조탕과 일본식 가옥들이 나란히 늘

어서 있었다. 월미조탕은 그 당시 지어진 꽤 큰 규모의 공중목욕탕인데 들어가 본 적은 없다. 우리는 일본식 가옥 2층 다다미방에 세 들어 살았다. 짚으로 만든 여러 개의 사각형 돛자리가 마룻바닥을 덮은 형태인데 두께감이 있어 폭신했다. 하지만 겨울에는 방바닥 난방이 되지 않아 방 한가운데 난로를 피우고 살았다. 우리 집 앞으로는 단층 짜리 주택들이 좁은 골목을 이루며 촘촘히 들어서 있었다. 골목길은 항상 전봇대 희미한 전등이 깜빡거리며 달빛을 반사할 때까지 아이들의 함성으로 가득 채워졌다. 한 아이가 전봇대 아래 등 기대고 중심을 잡으면 그 아이 바짓가랑이 사이로 여러 아이가 차례로 엮드려 머리를 들이밀고 기다란 말을 만들었다. 전투태세로 줄지었던 아이들은 달음질하여 말 등에 힘껏 올라탔고 비틀거리는 말 엉덩이를 탁탁 치며 시간을 잊은 채 까르르거렸다. ...'

-자서전 <사라진 이야기> 중에서 발췌-

사람이 태어나 살면서 자기 삶을 기록한다는 것은 시대를 엮는 한 인간의 역사다. 베이비부머시대에 출생하여 어려운 시절을 보냈고 대통령 선거를 일곱 번이나 했던 짧지 않은 나의 60년이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내 삶의 이야기를 자식들과 지인들에게 전해주고 싶다는 소박한 바람으로 시작한 글쓰기였다. 그런데 그 일이 나 자신에게 추억을 불러일으켜 주고 변화한 시대와 지역을 일깨워주었으며 지금을 또다시 기록할 힘을 주었다. 내게 지금까지 너무 잘 견디며 살아왔다고 무한한 위로의 말도 건네주었다. 재작년에 결혼한 딸은 엄마의 책 출간을 기대한다며 응원을 보내왔다. 자식들에게 과거 이야기를 통해 자연스럽게 역사를 보여주면 그들 또한 현재를 기록하여 먼 훗날 또 다른 과거를 되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도 생겼다.

코로나로 무료하고 답답하던 하루하루는 나와 친구, 지인, 동네, 지역 등의 이야기를 풀어놓으며 모눈종이 눈금 채우듯 흘러갔다. 눈을 뜨고 만나는 복잡한 세상에서 잠시 눈을 감고 관계를 쉬니 맑은 내 안이 들여다보였다. 지금까지 외부 조건에 의해 힘겹게 휘둘러 살아왔던 내 모습도 보였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는 잣대에 맞춰 행동하고 밍보이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썼던 일도 부끄러움으로 밀려왔다.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하지 않은 삶은 없다. 인간이라면 누구의 삶이라도 의미 있고 가치가 있다. 조금 허술하고 부족하더라도 삶의 끈을 이어온 기록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추억을 불러일으키고 용기와 힘을 줄 지도 모른다. 나의 60년을 한마디로 정의할 책 제목을 고민하고 있는데 전화 착신 음이 울렸다.

“잘 지내지? 백신 맞았어? 나는 1차 예약 때 부작용 겁나서 안 했거든. 그런데 백신 접종 안 하니까 사회생활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잔여 백신 신청해서 맞았어. 그런데 너는 요즘 뭐하면서 시간 보내니?”

“응, 사실은 올가을 내가 환갑이 되잖아. 친구들과 환갑여행 가려던 계획도 물거품 되고 뭔가 의미 있는 일을 고민하다가 책 한 권 내보기로 했어. 예전부터 내 나이 60이 되면 내 삶을 돌아보는 기록 한 권쯤은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거든.”

“그래? 너 참 대단한 일을 했구나. 친구들끼리 모여 축하 파티라도 해야 하는데 그럴 수 없으니 아쉽네. 미리 축하해. 책 나오면 꼭 보내줘” 안부를 묻는 친구들의 전화도 온통 코로나 세상이다. 코로나로 인해 우울하고 답답하던 날들은 글을 쓰면서 어느덧 일 년을 넘겼다. 옛일을 떠올리며 혼자 울고 웃었던 순간들은 행복한 추억놀이였다. 과거를 넘나들며 나에게 몰입하여 내 삶을 돌아보고 다듬어 보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의 튼실한 결실을 위해 나를 쓰다듬으며 행복의 등대를 세우는 일이었다.

글을 쓴다는 것은 위로와 치유다. 일과의 짧은 기록이더라도 내면의 자아를 만나 대화하는 일이다. 추억의 거리를 방황하는 일이다. 대면으로 만날 수 없는 사람들과 함께 사는 일이다. 위로와 치유를 받으며 자서전이라는 이름으로 한 권의 책을 완성할 수 있도록 시간을 내준 코로나가 역설적이게도 고맙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했다. 막힌 문을 두드리며 탓하기보다 어떻게 다른 문을 열고 나갈 것인지 고민하는 지



혜가 돋보이는 요즘이다. 하늘에 드리운 초록 물결이 보고파 외출하는 공원 산책길에도 마스크를 쓴 사람들의 행렬이 나를 경계하게 한다. 하지만 우주의 시간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머무르지 않고 흘러간다. 두껍게 장막을 치고 두려운 모습으로 우리를 조여 오는 코로나도 구름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듯 언젠가는 흩어져 없어질 것이다. '코로나'라는 단어가 우리 곁에서 사라지는 날, 괴롭고 무료하던 코로나 시대를 글로 옮기던 시간이 또 한 장의 추억이 되어 그리움으로 기억될지도 모를 일이다.